

서울시 거주 이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황향화 · 김옥녀**

(이촌글로벌빌리지센터 · 숙명여자대학교)

1. 들어가기
2. 이론적 배경
 - 2.1. 이주민의 생활만족도
 - 2.2. 사회적 자본
 - 2.3.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
3. 연구방법
 - 3.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 3.2. 측정변수 및 연구모형
 - 3.3. 분석방법
4. 연구 결과
 -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기술통계
 - 4.2. 이주민의 배경 변인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족도의 차이
 - 4.3. 체류 자격에 따른 이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5. 결론 및 논의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 제 1저자 : 황향화, 교신저자 : 김옥녀

■ 국문초록

2019년 책 (베) 료
 민 회 , 족 치
 음 같 , 민 회
 량 우 령, , 류 격, 능력, 족
 르 냈 며, 속 르 냈 .
 민 족 득 르 냈 .
 , 혼 민 회 량 , 력 ,
 능력 , 짧 족 냈
 취업 우, 회 량 능력
 족 냈 . 근 민
 족 위 , 책 언 .

주제에 민 회 , 족 ,

1. 들어가기

국내 체류 외국인인 2007년 100만 을 어섰으며, 그 이후 빠른 속도 증가하고 있다. 부 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의하면 외국인 이주민은 2009년 237만 , 2019년 252만 , 2021년 300만 , 향후 10년 이내에는 500만 으로 증가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부 2020) 본 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외국인 이주민의 증가 이유는 과 고령화, 농촌 및 장의 생 인력 부 에 따른 이주 노동자의 증가, 국제 이민자의 증가 등이 주요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니즈(needs)의 위에 관 제도와 이 시행되면서 외국인 이주민의 유입이 대되고, 관 연구의 방향도 이주민 유입 및 증가 시기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이주민 유입 초기에는 정책적 비나 대 이 없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와 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인 침해

와 다양한 차에 대해 인보 차원에서 시민활동을 중심으로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보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는 국제이주의 연구 맥에서 사회학자들의 노의가 시작되었으며, 정부는 2006년 이민자 지원 대책을 하면서 관 지원정책을 다문화사회의 맥에서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가 지원을 비롯한 이민자 지원정책이 되면서부터 다문화열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반면 이러한 열풍은 다문화주의에 대한 피로감과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등의 역풍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반()이민 혐정서가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인되고 있다(한수, 2012). 구체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시혜적 지원정책에 따른 역차, 장기 불체류자 증가에 따른 불감증대, 내국인 일자 침해 등에서 기인하는 가 많다. 그동안 이주민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정부는 이주민과 정주민의 상이해를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가 중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는 관심이 부다. 그과, 이주민과 정주민 간의 문화갈등이 증뿐만 아니라, 이주민에 대한 정주민들의 편과차, 불정하고 열악한 노동과 제적어움, 열악한 주거 등으로 인해 이주민들은 한국사회에서 생활하고 정하는 어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임동진, 2021).

이주민에게 정주국에서의 생활만도(Life Satisfaction)는 행감이나 심적 정을 어서 세대를 어 정적인 자아 중감성, 가과 사회관계를 구축하는 에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의 삶의 만도 연구를 통해 생활만도가 높을수 자에 대해 애정적이고 적인 양육 도를 보이는 반면, 이들의 낮은 삶의 만도는 자에 대한 강압적인 양육 도로 나 다는 사(신영 박성연 2008)을 볼 때, 다문화가정 이주자들의 낮은 삶의 만도는 자칫 다문화가정 자들에게 데림가성이 높다는 것을 수 있었다. 과적으로 한국사회에서의 삶의 불만 악이 세대를 거쳐 반수 있다는 면에서 사회통 및 문화적응이라는 다문화사회의 궁적인 목를 성하기 위해서도 이주민의 생활만도에 대한 연구는 중 요할 수 밖에 없다.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이주민의 장기체류 증가와 체류자 및 국적의 다양성 대가 보인다. 국적 및 체류자의 관점에서 보면 기 개발도상국 신자들이 대부분이었던 상황에서 선진국 신자도 많아졌고, 국내 유입의 목적도 노임의 제 이 아 유학생, 연예인 지망생, 로 수인재들이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가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다문화정책도 초기 동화주의 정책에서 상 문화주의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성이 제기 다. 상 문화주의, 이주민들을 한국 사회에 일방적으로 적응시키기 위해 한국 문화에 동화시키는 일방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상이한 문화 간 또는 만남을 장 하고, 상 주관성에 거한 상 이해와 대화의 가 성을 탐구 으로서 통의 문화 또는 열적 장의 과 께 새로운 사회통 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테 캔틀 2020).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 과 문화적응을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으로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 이주민에게 사회적 자본의 성과 상 작용은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정 하는 밀 한 연관을 지 다고 보고 있다(동현 전희정 2019). 이들이 성한 사회적 자본이 점차 대되고 주류와의 면을 넓히는 연 망 으로서 꾸 히 기 한다면 이주민의 성 적 정 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적 자본은 이주민이 이주사회에서 정 하는 필요한 생활만 도와 깊은 상관을 지 다(동현 전희정 2019; Amit & Riss 2007). 불어 같은 외국인 이주민라고 해도 체류자 에 따라 사회적 자본 유 이 다 고(Jun & Ha 2015; 이정 2016), 사회적 자본 유 에 따라 생활만 도의 차이가 나 나며 (동현 전희정 2019), 국적에 따라 사회적 자본 성 유 이 다 다는 것을 수 있었다(세현 2018; 이은정 이 용 2015). 그 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이주민의 성 , 국적, 득수 , 한국어 령, 체류 기간 등 개인변인에 따라 사회적 자본 성이 어떻게 라지는데 대한 연구가 전 한 정이며, 개인 변인을 한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 도간의 관계 검증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정이다(동현 전희정 2019). 그러므로 이주민이 이주사회에 조기정 을 위해 개인 변인과 체

류자 에 따른 사회적 자본 성과 생활만 도 요인을 규 하기 위해 세분화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 에서 본 문의 목적은 이주민의 특성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유 을 분석하고, 이들 요인이 생활만 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 한 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이주 특성을 지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 할 수 있는 이민 정책 성의 기초자료를 제 하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 과 같다.

첫 . 이주민의 변인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는 어떠한가?

둘 . 이주민의 변인에 따른 생활만 도 차이는 어떠한가?

셋 , 체류 자 에 따른 이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 도에 미치 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정 들(2003)은 생활만 도는 히 삶의 만 도, 삶의 질, 심 적 상 , 행 감 등 학자들의 연구 목적에 따라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사용 다고 한다. Diener(1984)는 생활만 도의 개념을 전체 적인 삶에 대한 통 적인 판 에 따라 주관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가를 내 정도 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성재(1986)은 생활만 도는 행 감 이라는 개념과 상 교 적으로 사용되며, 정적인 면으 로는 과거, 현재, 미 의 삶에서의 가치 인 에 대한 가이며, 동적인 면에서는 과거, 현재, 미 의 제적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가 그 고 미 의 삶과 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로 보고 있 다. 그러므로 생활만 도는 대상자의 주관적인 시 에 따라 생활영역 전 반을 다루게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 도의 정의를 주관적 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가를 내 정도로 보는 Diener의 정의를 아 들여 정의하고자 한다. , 생활만 도는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가를 통해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 러운가를 가하는 것으로 질적이 정신적이 인생의 목 나 욕구를 성하기 위한 개인의 주관적인 가로 정의하고자 한다. 생활만 도와 관 연 구는 득 수 에 따른 만 도 분석과 같은 제학적 관점에서 발하여 점차 주관적 행 감(=만 도)으로 연구의 중심이 이동하였다. 이후 주관적 행 감은 개인의 냉철한 인지적 면에 대한 분석보다는 감정적으로 행 한 상 라는 해가 세하게 되었다(Diener 2000).

생활만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게 가지 요인 구분 수 있다. 첫 ,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연령(이규용 박성재 2010), 성 (나금 2011; 이규용 박성재 2010), 신국가(세현 2018), 거주기간(Safi 2010; 한성 이유신 2013), 체류자 (동현 전희정 2019)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둘 , 개인적 역량으로 학 력(Safi 2010; 이규용 박성재 2010) 과 한국어 력력(Amit 2010; 대 2016; 이규용 박성재 2010; 미 2012). 셋 , 제적 요인 으로 득수 과 제적 지위(Safi 2010; Amit 2010), 넷 , 정부지원 정책요인으로 정부지원 서비 및 시설에 대한 성과 이용도(임동진 2022)가 생활만 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났다. 반면 신 국적이나 체류자 요인, 사회적 자본(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정이다(동현 전희정 2019). 신국적은 신국에서 성장한 이후에 이주하는 대부분의 외국인 이주민의 가치관, 사회적 관념, 행동 습관, 생활 도가 신국가의 문화 적 요인에 의해 성되고 영향을 을 가 성이 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요 가 것이다. 철수 (2018)는 이주여성의 삶의 만 도에 관한 연구에서 신 국가 차 이가 여부를 분석하였다. 연구 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으나, 국 적에 따라 생활만 도의 차이가 재하는 것으로 나 났다. 개변수로서 자아 증감, 대인관계 등의 변인이 국적 로 차이가 재하였고, 그 것이 생활만 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났다. 그동 체 류자 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진행되었지만,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외국인 로자에 대한 연구라고 해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 다. 서로 다른 체류목적을 지 을

비교분석 한 것은 많지 으며, 최 에 이 러시아 체류 목적에 따른 비교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동현, 전희정(2019)은 방문 업자와 이민자 간의 비교를 통해 이들이 성하는 사회적 자본 유 과 생활만 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과, 체류자 로 효과적인 사회적 자본 유 과 생활만 도의 관계를 검증하고 있다. 이렇 체류목적과 조 이 상이하기 때문에 생활만 도에 대한 주관적 만 도는 다를 수 밖 에 없다. 이에 체류자 에 따른 생활만 도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가 필 요하다. 또한, 미(2012)는 여성 이민자의 생활만 도와 정서적 연계(사회적 모임의 여도)를 조사한 과, 정서적 연계가 강한 남 신자가 중국 신자보다 높 고, 일본 신자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 났다. 이는 신국가 그 자체가 생활만 도에 직 적인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개인의 자아 증감이나 사회적 관계 성 등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과적으로 생활만 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에 거하여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 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특성의 변수로는 개인적 요인으로 성 , 연령, 학력, 득수 , 한국어 력, 한국거주기간은 특히 국적과 체 류자 , 사회적 자본유 을 선정하여 생활만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9 서울서 이에서 시한 6가 지 생활만 도 테고 를 구성요인으로 정의할 것이다. , 주거 (상하수도, 전기, 통신, 주택, 교 , 녹지 등), 제 (구직, 득, 로 시간 등), 지 (의료, 사회보장 등), 사회 (외국인에 대한 , 용성 등), 교육 (교육비, 교육기회 등), 도시 전(범죄, 사고, 재해 등)에 대한 주관적 심 적 만 상 를 생활만 도의 구성요인으로 을 것이다.

Putnam(1993; 2000)은 사회적 자본을 협력적 행동을 진 으로서 사회적 효율성을 향상시 는 신뢰, 규범, 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 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사회적 자본을 이루는 구성요 로서 사회적

(Social Network), 사회적 규범(Social Norms), 신뢰(Trust)를 강조하였다. 학계에서도 사회적 자본의 개념에서 발하여 이주민의 생활세계를 보다 현 적이고 세분화하여 악하는 연구가 대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의 생활만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성 과정에 대한 연구와 이주민들이 지 사회적 자본 수을 정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이주민들은 가 , 구에서부터 교체, 국가가 운영하는 지원기관에 이 기 지 다양한 간접, 시간적에서 성되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상 간 신뢰를 구축하고 정서적 지지를 주고 는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자본을 성하며 이것이 외국인 이주민의 생활만 도에 영향을 미 다. 이주민들은 초기에는 한국인 거주지역과 분 지역에서 모국인들과 사회적 를 구축하고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 고 한다(이 2013). 주로 한국 주류 사회와 이민자 거주지 내에서 모국인들과의 사회적 를 통해 정보교 , 상 부조 등 사회적 자본을 성하여 한국 사회 내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 하 고 한다 (영 2008; 이금희 외 2016).

Putnam(1993; 2000)은 사회적 를 의 조밀성에 따라 규범에 대한 응성과 상 책임에 기반한 신뢰가 성되기 쉽고, 이를 분석하기 위해 속 과 교량 으로 분류하였다. Jun & Ha(2015)는 사회적 자본 중 사회적 를 속 , 교량 , 연계 사회적 자본으로 구분하여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의 간 사회적 자본 수 의 차이와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계 는 넓게 보면 교량 중 하나이며 외국인 이주민의 수직적 관계가 많지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계 를 제외하고 속 와 교량 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utnam(1993; 2000)과 동현 전희정(2019)이 정의한 속 와 교량 를 활용하여 이주민들의 인구 사회학적 요 와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고, 사회적 자본과 생활만 도 와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적 자본이 외국인주민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지난 10년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장지혜(2010)는 한국에 살고 있는 여성 외국인주민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변수로써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나금(2011)은 이주노동자의 사회적 연대망이 이주노동자의 직업만족도에 높은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적

지원을 통한 사회적 지원은 이주노동자의 직업만족도에 부분적 개효과가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성과국적에 따라 이주노동자에 대한 양질의 사회적 연대망성과 사회적 지원, 정책적 대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장현주(2011)는 외국인주민들의 생활만족도는 이주국에 대한 사회적 헌신과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자본 중에서 사회적

자본의 구축이 외국인주민들의 심리적 정서와 생활상의 문제해결, 자아중감(Self-esteem)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여성 외국인주민의 사회적 연대망과 한국 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김미영 2012)에서는 가계변인 중에서는 모국가정빈도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동거가정빈도는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영(2015)은 여성 외국인주민의 사회적 자본(신뢰, 참여, 규범)이 직업제도에 대한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며, 이영균과 이민자(2016)는 이주여성이 지니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신뢰, 가계 및 사회적 지지망, 참여, 규범 등이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세현(2018)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사회적 자본설 요인을 탐구하고 이주민의 신국적에 따라 사회적 자본구조가 느슨-중간-고밀도의 세 단계로 나뉘었다고 분석하였다. 동현과 전희(2019)은 방문업자는 모국인과 모국인 사회와의 속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주민에게는 교량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인과 한국 사회와의 교량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이 이주민들의 성 적인 한국생활 정 과 생활만 도에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 요 로 인되고 있다. 반면 사회적 자본을 유 로 구분하여 사회적 자본의 특성이 외국인 이주민들의 생활만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으로만 진행되어 다. 이정 (2016)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를 분석 지만 외국인노동자의 여 모임 일요인만을 고 하는 수 에 불과하였고, 동현과 전희 (2019)은 방문 업자와 이민자를 구분하여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 으나, 이주민의 사회문화적 에 따른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정은 규 하지 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사회문화적 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 나는 방문 업자와 이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 성 정도를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 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거주 외국인 주민의 생활만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19년도 서울시 이 도시정책지 조사 정보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자료는 서울시가 서울의 전반적인 사회상을 악 하고, 서울시정 운영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보를 위해 2003년부터 년 가구(2만가구), 시민(5), 외국인(2,500)을 대상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 생활상, 가치관과 주거여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모 은 전체 대상 중 2019년 9월 1일 현재 국내 91일 이상 체류 중인 만 20세 이상의 서울시 거주 외국인 주민이다. 외국인 주민의 본 추 은 서울시에서 제 한 입국 관 사 외국인등 DB 를 으로 성 , 연령, 국적, 체류자 , 체류 등의 층화계통 추

을 통해 되었다. 연구에서 사용 조사는 2019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 지 30일간 방문면 조사(Face to Face Interview) 과 자료이며, 외국인 주민의 응답자는 2,500 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주민 2,500 중 연구 목적에 적 한 방문 업자와 이주민에 해당하는 외국인 주민을 본추 하였으며, 최 647 의 외국인 주민을 최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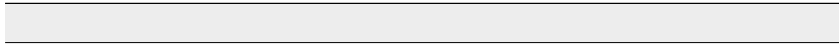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 정변수는 생활만 도 요인, 사회적 자본 요인, 인구학적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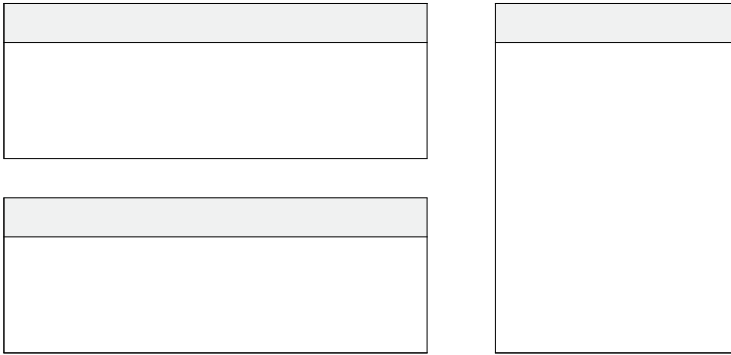
속변수로 사용 변수는 개인의 주관적인 생활만 도이다. 2019년도 서울서 이 도시정책지 조사 에서 생활(삶)만 도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전반적인 생활 에 대한 만 정도 이다. 생활만 도는 6개 영역 , 주거 제 지 사회 교육 과 도시 전 에 대한 문 으로 구성되었다. 정도구는 5점 커 (Likert) 척도로 1점(불만)에서 5점(만)으로 정되며 점수가 높을수 생활만 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 s α 값은 .825로 나 났다.

다 으로 독립변수로 사용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여하는 체 또는 모임으로 정의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여자 및 모임 특성에 따라 속 자본과 교량 자본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자본 유 에 대한 설문은 2019년도 서울서 이 도시정책지 조사 에서 귀하께서 정기적으로 여하는 체나 모임은 다 중 어떤 것입니 ? 라는 질문 중심으로 조사자의 응답 내용에 따라 구분하였다. 응답 중에서 모국인을 중심으로 한 모국인 구모임, 모국인 사회 체는 속 사회적 자본 으로 구분하였다. 교량 사회적 자본 은 모국인 이외의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한국인, 국 외국인들과 사회적 를 을 수 있는 여성 이주민 모임, 로 빌 지 터 모

입, 한국다문화 터 모임, 외국인 노동자 지원 터, 교 모임, 유학생 , 미 동 회, 학습 관 모임 으로 분류하였다.

통제변수로 사용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선행연구에 거하여 연령(이규용 박성재 2010), 성 (나금 2011; 이규용 박성재 2010), 학력 (Safi 2010; 이규용 박성재 2010), 득 수 (Safi 2010; Amit 2010), 한국어 력(Amit 2010; 대 2016; 이규용 박성재 2010; 미 2012), 체류기간(Safi 2010; 한성 이유신 2013), 체류자 (동현 전희정 2019), 신국가(세현 2018)로 설정하였다. 주요변수에 대한 설 과 정방 은 다 의 <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서울시 거주 이주민의 사회적 자본 와 생활만 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모 은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속변수는 서울시 거주 이주민의 생활만 도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서울시 거주 이주민의 사회적 자본(교 량 자본, 속 자본)으로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 요 인으로 성 , 연령, 학력, 득수 , 한국어 력, 한국 거주기간, 체류자 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 통계분석을 시하였으며, 변인에 따른 생활만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독립 본 t검정과 일원분 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4. 연구 결과

이주민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이에 따른 생활만도도의 차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이주민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의 < -2>와 같다. 성은 여성(52.9%)이 남성(47.1%)보다 많으며, 연령대는 30대(47.8%), 40대(31.2%), 50대(11.6%), 20대(7.4%), 60

| |
|--|
| |
| |
| |
| |
| |
| |
| |
| |

대 이상(2.0%) 으로 나 났다.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74.3%)이 도적 으로 높은 비중을 나 났고, 중국(7.6%), 아시아 기 (5.7%), 남 (5.1%), 영미 및 유럽 (4.2%), 일본(2.6%). 이 (0.5%) 으로 나 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59.2%)가 과반수 이상이였으며, 그 다 으로 대학교(2년제) 졸업 이하(28.3%), 중학교 졸업 이하 (11.4%), 대학원 재학 이상(1.1%) 으로 나 났다. 월 균 득수 은 200만원 미만(48.7%),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36.8%), 400만원 이상 (2.9%) 으로 나 났다. 체류자 은 방문 업(66.3%)이 이 민자(33.7%)보다 많은 것으로 나 났다. 한국어 력은, 한국어 력에 대한 자기 가 질문의 계와 균을 하여 균을 기 으로 두 으로 구분하였다. 균미만(53.5%)이 균이상(46.5%)보다 많은 것으로 나 났다.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생활만 도의 기 통계는 < -3>과 같다. 생활만 도의 균은 22.66점으로 나 났다. 균을 기 으로 균미만과 균이상으로 구분하여 기 통계를 시한 과, 균미만 은 균 20.31점, 균이상 의 24.54점이다. 왜도와 첨도의 , 왜도는 대값이 3보다 고, 첨도는 대값이 10보다 큰 자료의 정규성 에 문제가 있다고 판 할 수 있다(Kline 2015). 본 연구의 생활만 도 변수는 왜도와 첨도 모두 기 값을 지 는 것으로 나 나 자료 정규 성의 문제 가 성이 낮은 것으로 판 할 수 있다.

이주민의 변인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제 검정을 시하였다. 이를 위해 연령, 성, 국적, 학력, 득수, 체류자, 한국어 력, 생활만 도에 따라 사회적 자본을 비교한 교차 를 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교량 자본과 속 자본으로 구분하였으며, 교량 및 속 모임의 여 여부로 설정하였다.

교량 자본을 연구 대상자의 변인에 따라 분석한 과는 < -4>와 같다. 연령, 국적, 체류자, 한국어 력, 생활만 도에서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 았다. 연령의 주로 30대와 40대 중심으로 교량 모임에 많이 여하는 것으로 나 았다(=11.728, $p<.05$). 국적에 따른 교량 모임의 여 비율은 한국계 중국인, 남, 아시아 기 국가와 영미 및 유 국가에서 비교적 높게 나 반면, 일본, 이 은 미 여 비율이 높고, 중국은 여와 비 여가 비슷한 비율로 나 았다(=19.847, $p<.05$). 이민자 보다 방문 업 에서 교량 모임의 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 았다 (=7.171, $p<.01$). 한국어 력 점수를 균이상과 이하 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과, 균 이상 에서 교량 모임에 여하는 비율이 미 여 비율보다 높게 나 았다(=50.522, $p<.001$). 생활만 도의 균이상과 미만 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과, 균 이상 에서 교량 모임에 여하는 비율이 미 여 비율보다 높게 나 았다(=23.626, $p<.001$).

다 으로 이주민의 변인에 따른 속 자본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이제 검정을 시하였으며, 과는 < -5>와 같다. 유일하게 국적에 따른 속 모임의 여 여부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았다. 대체적으로 미 여하는 가 많은 것을 수 있으며, 국가간 미 여 하는 비율은 조금씩 차이를 나 내는 것으로 나 았다.

이주민의 변인에 따른 생활만 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독립
본 t검정과 일원분 분석을 시하였다. 분석 과는 < 4-6>과 같다.



이주민의 체류자, 한국어 능력, 국적, 득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체류자에서는 방문업을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방문업 이주민들이 이주민보다 생활만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3.997, p<.001$). 한국어 능력에 따른 생활만도 차이는 균이상 이 균미만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4.450, p<.001$). 국적에 따른 생활만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결과, 한국계 중국인이 중국인보다 생활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3.582, p<.01$). 득수에 따른 생활만도는 200만원 미만 이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5.755, p<.01$).

이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체류자에 따라 세분화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연구과는 < -7>과 같다.

첫, 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연구대상자 중 이민자의 사회적 자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5.007, p<.001$), 회귀모의 설명력은 23.7%(수정 R제은 19.2%)로 나타났다($R^2=.237, adjR^2=.192$). Durbin-Watson의 통계량은 1.654로 2에 사한 값을 보여 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가되었고, 분팽지수(VIF)는 모두 1에 가운 값을 보여 다중선성문제도 낮은 것으로 판다.

사회적 자본 중 교량모임여($\beta=.180, p<.05$)는 생활만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 중 한국어 능력($\beta=.189, p<.05$), 한국거주기간($\beta=-.226, p<.05$)은 생활만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자본 중에서도 교량모임에 해당하는 모임에 여하는 생활만도가 높아지는 영향을 주는 것을 수 있다. 또한 통제변수를 통해 생활만도에 영향을 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05, ** p<.01, *** p<.001

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한국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한국에 거주하는 기간은 짧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계수의 기를 비교하면, 한국 거주기간, 한국어 능력, 사회적 자본 중 교량 모임 여으로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두, 방문업을 위해 거주하는 이주민의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체류자 이 방문업인만 구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4.759,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8.3%(수정 R제은 6.6%)로 나타났다(R²=.082, adjR²=.066). Durbin-Watson의 통계량은 1.633으로 2에 사한 값을 보여 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가되었고, 분팽지수(VIF)는 모두 1에 가운 값을 보여

다중 선성 문제도 낮은 것으로 판 다. 사회적 자본 중 교량 모임 여(=.141, $p < .01$)는 생활만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로 투입한 변수들 중 한국어 력(=.192, $p < .01$)은 생활만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력이 높을수 생활만 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 계수의 기를 비교하면, 한국어 력, 교량 사회적 자본 으로 생활만 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2019년도 서울서 이 도시정책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서울시 거주 외국인 이주민을 대상으로 변인에 따른 사회적 자본 유 을 살펴보고,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있다.

주요 연구 과를 요 하면 다 과 같다. 첫 , 이주민의 변인에 따른 사회적 자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 냈다. 교량 자본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주민의 연령의 , 연령대보다 30대와 40대 이, 국적에서는 일본과 이 보다 한국계 중국인, 남, 아시아 기 국가와 영미 및 유 국가가, 체류자 은 이주민보다 방문 업 이주민이, 한국어 력과 생활만 도는 군 미만보다 군 이상 에서 교량 모임 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 냈다.

속 자본의 차이를 살펴보면 유일하게 국적에 따라 라지는 것으로 나 냈다.

들 , 이주민의 변인에 따른 생활만 도의 차이는 국적과 득 수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 냈다. 한국계 중국인이 중국인보다 높게 냈으며, 200만원 미만 이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보다 높게 나 냈다.

셋 , 이주민의 체류자 에 따라 사회적 자본이 생활만 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과, 이주민의 사회적 자본 중 교량 자본이

개인변인 중 한국어 구사 력이 높을수 ,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 생활만 도가 높게 나 났다. 방문 업자의 사회적 자본 중 교량 자본이, 개인변인 중 한국어 구사 력이 높을수 생활만 도가 높게 나 났다.

연구 과를 으로 관 선행연구와의 비교 및 의를 하면 다 과 같다. 첫 , 외국인 이주민의 생활만 도 향상을 위해서는 이민자와 방문 업자 모두 교량적 사회적 자본의 성과 여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인할 수 있다. 속 사회적 자본과 관 해 볼 때, 이민자 이 방문 업자이 모두 모국인과의 속 모임에 대한 여는 생활만 도에 영향을 미치지 다. 동현과 전희정(2019)은 속 모임에 정기적으로 여하는 생활만 도에 부(-)의 영향을 미 다고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영향관계의 성립이 인되지 다. 둘째, 국적 요인은 교량 과 속 사회적 자본과 유의한 관계를 지니지만 국적에 따라 여도와 개방성이 미미하게나 다 게 나 났다. 이는 세현(2018)의 연구에서 보 이 국적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구조가 다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향후 국적에 대한 본을 균 적으로 많이 수 할 수 있다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다. 셋 , 한국어 력은 사회적 자본 성과 생활만 도 향상에 있어서 모두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과는 선행연구에서도 통적으로 인되고 있다(한성 이유신 2013; 동현 전희정 2019). 한편 정 석 (2016)의 연구에서는 한국어 력이 직 한국계 중국인에게만 유의한 과로 나 나, 향후 연구에서는 국적 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 , 한국내 거주기간이 짧을수 생활만 도가 높게 나 났다. 방문 업자의 , 주어진 비자의 체류기한 내에서 돈을 고 귀국하는 것을 목 로 하지만 최 의 추세는 장기체류화가 발생하고 있고, 구나 이민자의 는 한국 내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감 하면 시간이 갈수 생활만 도가 높아지지 다는 것은 다양한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미(2012)에 의하면, 이주여성의 거주기간은 생활만 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영분과 이유 (2009)의 연구에서는 초기

에는 이주여성의 만 도가 상대적으로 높 다가 이후 점차 감 하며 10년 후에는 다시 높아지는 향을 보였다. 이는 기간과 삶의 만 도에 대한 다른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과라고 할 수 있다(화자 윤 희 1991). 이에 비해, 방문 업자는 제활동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거주기간이 짧으면 반 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만 한국에서 노동 및 생활 이 만 러 왔다면 최대한 국내에 거주할 가 성이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최 최대 4년 9개월 지 체류연장이 가 하고 장기체류화 추세이기 때문에 향후 방문 업자에 대한 세분화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 거하여 업방문자 및 이주민들의 생활만 도 향상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제적인 지원정책들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 과 같다. 첫 , 외국인 이주민의 교량 사회적 자원을 성할 수 있도 진하고 수 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내국인 외국인 모두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 의 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주민들을 일방적으로 한국 사회에 동화시 는 방향보다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을 대해야 할 것이다(동현 전희정, 2019; 박미정 엄 용 2009). 또한, 내국인들과 쌍방향으로 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동 여 로그 을 개발해야 한다. 지역 내 외국인 이주민들의 특성을 아는 지자체와 지역사회 체가 주도하는 상 문화교류 기회를 대 하고 이주민들과 한국인들이 다 계 동 할 수 있는 교량 자원을 자연 계 구축할 수 있도 해야 한다(동현 전희정 2019; 이성 2013). 둘 , 외국인 이주민들의 체류주기에 따른 지원방 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내 거주기간이 짧을수 생활만 도가 높다는 상황을 고 하면 이주민자에게는 생애주기에 기반한 지원방 이 필요하다(동현 전희정 2019). 셋 , 이민자와 방문 업자 모두 한국어 력을 향상시 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어 수 향상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기관 로 운영되는 한국어 교육 로그 의 등 세 분화와 수강생에 대한 로그 다양화 등이 필요가 있다.

연구의 한계점과 그에 따른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 과 같다.

첫 , 사회적 자본의 개념 속에는 사회적 이외에 신뢰와 사회적 규범이 있지만 2019 서울시 이의 자료를 활용하는 조 상 이러한 요 를 분히 고 하지 다. 사회적 의 속 , 교량 , 연계 이 재하지만 수직적 상하관계를 연구하는 연계 은 외국인 이주민에게는 적 한 개념이 되지 을 것으로 판 하여 2가지만 정 하였다. 향후 사회적 자본을 세부적으로 악할 수 있는 자료나 방 이 있다면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영향요인을 고 해 볼 수 있고 관 로그 의 개발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인터뷰 등의 질적연구를 통해 심화 문맥도 과 시사점 악이 가 할 것으로 보여진다.

둘 , 변인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관한 분석에서 국적은 교량 과 속 사회적 자본에 모두 유의한 과를 나 냈지만 이에 대한 심층적인 은 어 왔다. 향후, 신 국적 로 사회적 자본 유 의 와 그것이 생활만 도와 어떤 관계를 성하는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 할 것으로 판 다.

셋 , 외국인 이주민의 체류가 장기화 에 따라 이민세대 간 및 가 구성원 간의 의 차이에 대한 탐구도 필요할 것이다. 방문 업자의 에는 직업 /지역 / 특구간 특 을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

Abstract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Living Satisfaction of Migrants in Seoul

Hwang, hyang-hwa · Kim, ock-nyu

(Ichon Global Village Center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living satisfaction of foreign migrants. The data were based on the 2019 Seoul Survey of Urban Policy Indicators (Seoul Survey) for foreign residents living in Seou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type of stay of migrants, marriage immigrant groups had higher satisfaction with living in Korea when forming bridge-type social capital. Visiting employment groups had high Korean language skills and high living satisfaction when forming bridge-type social capital. Second, the Korean language ability, length of residence, and bridge-type social capital of migrants were found to affect living satisfaction.

[Key words] Migrants, Social Capital, Living Satisfaction, Interculturalism

투고일 2023. 03. 06 / 심사일 2023. 03. 16 / 심사완료일 2023. 03. 20